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정도 피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취미나 생각, 생활 등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 자기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피우기도 하고 피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담배를 피우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담배의 악영향이다. 담배는 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나 전차와 같은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외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반드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